

그때 그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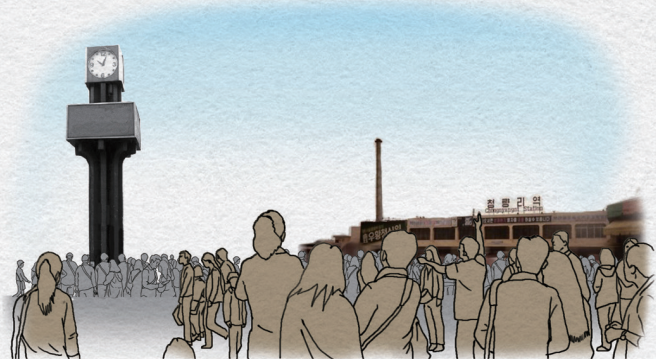
대학시절의 아련한, MT의 추억



교수님이 나가시기 무섭게 MT장소 논의로
교실안은 어느새 시끌벅적했었죠



꿈과 희망의 대학시절 강의실엔
MT를 기다리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청량리 기차역 광장 시계탑 주위에는
앓된 얼굴에 웃음 가득한 젊은이들이 기타를 메고
먹거리를 들고 기차시간을 기다리며 모여 있었죠



대성리, 강촌으로 가는 완행열차 안에서는
시끌벅적 노래소리와 게임소리로
뜨거운 젊음이 넘쳐났었죠





편을 나누어 공놀이도 하고 게임도 하며
즐거운 오후를 보냅니다

민박집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20~30명 잘 수 있는 운동장같이 큰 방이
있죠



시간은 어느새 쏜살같이 지나가고
해가 지기 시작하면 저녁을 준비합니다
서툰 솜씨지만 밥도 하고 찌개도 끓이고
삼겹살도 굽습니다



저녁을 먹고나면 본격적인 MT가 시작됩니다
자기소개도 하고 장기자랑도 진행합니다
밤이 깊어 캠프파이어가 잦아들즈음
달과 별들이 행복한 밤을 더욱 아름답게 합니다



이제 방안으로 들어가 잠들기도 하고
술자리를 이어가기도 하였습니다...

